

“교육이 도시 경쟁력 핵심”...나주시, 지방교육 모델 제시

미래 인재 양성 등 혁신정책 마련
10년 내 학생 3만 시대 실현 목표
2034년까지 '빅뱅 프로젝트' 추진
전국 최초 '예술 더하기 수업' 운영
과밀학급 해소 등 인프라 개선 속도

나주시가 교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미래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구축을 위한 전방위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협력,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평생학습 선도모델 구축 등 나주의 교육혁신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지방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내 학생 3만명 시대 실현을 목표로 2034년까지 장기 계획과 3단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2025-2027년 '기반조성기'에는 교육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8-2032년 '교육성장기'에는 학교 신설 및 이설, 나주-광주 공동학급 제도입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며 2033-2034년 '빅뱅안정기'에는 나주교육다운 정착으로 인한 교육 유입 인구 증대와 광주-나주 공동생활권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개관한 어린이도서관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다함께돌봄센터를 비롯해 2025년 매성초(가칭) 신설 등 교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 밀착형 교육 인프라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개관한 빛가람꿈자람센터를

향후 3층으로 증축시켜 국제교류 통합 지원, 직업교육 교류 지원, 글로벌 교육센터, 다문화 학부모 이중언어 강사 양성, 화상 외국어 교육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예술 더하기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고 다양한 기초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예술 더하기 수업'은 올해부터는 참여 학교 6개교의 대상 학년을 4학년으로 통일하고 연극, 문학, 건축, 음악(합창 기악), 무용 등 기초예술을 심도 있게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전남 최초로 '나주(애) 배움바우처'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배움바우처 사업은 약 9천300명이 지원했으며 오는 7일 추첨을 통해 8일 5천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교육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빛가람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신설과 돌봄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성중·고등학교 분리 운영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현재 빛가람동 227-148번지 일원에 19학급 규모의 매성초(가칭)와 돌봄센터 신축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함께 사용 중인 매성중학교와 매성고등학교 분리도 추진한다. 매성중학교와 매성고등학교는 지난 2020년 개교 이후부터 같은 건물을 사용해 왔으나 교육 효율성 강화와 학생들의 독립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매성중학교 증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도 영어 체험 교실과 영어 캠프,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실용 영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높이고 있으며 해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방학 기간 운영되는 초등 영어 캠프는 체험과 놀이 중심 수업으로 참여 만족도가 높아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학교 수업 참여와 홈스테이 경험을 통해 글로벌 문화 이해와 실용 영어 능력을 강화해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최근 진도항에서 열린 새섬관매호 취항식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항-관매도 바닷길 잇는 '새섬관매호' 취항

84명·차 12대 수송... 3회 왕복
도서 지역 교통 편의 증진 등 기대

진도군은 "최근 진도항에서 진도항과 관매도를 잇는 새섬관매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취항식은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규래 진도군의회장, 군의원, 기관단체장, 언론인, 서진도농협, 조도면 주민, 조선소와 감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섬관매호의 운항을 알리고 안전 운항을 기원했다.

새섬관매호는 184t의 친환경(DPF) 여객선으로 여객 84명과 차량 12대를 수송할 수 있다. 진도와 관매도를 1일 3회 왕복 운행해, 도서 지역의 주민과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섬관매호의 취항은 안정적인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물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매도를 비롯한 조도 권역의 해양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새섬관매호의 취항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도서 지역에 대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데 힘쓰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영암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왕인문화축제' 연계 여행비 75% 환급

영암군은 기존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 사업에 더해 여행비를 최대 75%까지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관외 관광객이 영암에서 사용한 숙박·식음·체험 비용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체류형 관광 지원 정책이다. 특히 영암군은 기존 '원플러스원' 사업과 통합 운영해 신청과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객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급 혜택은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관광객은 1회 방문 시 50%, 2회 방문 시 최대 75%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19세부터 34세 청년은 1회 방문부터 70%의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이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50% 수준 지원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재방문을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을 제외한 외지 관광객이며, 인접 지역 주민은 기존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영암왕인문화축제'와 연계해 운영되며, 축제 기간 방문객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영암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군이 4월 한달간 고질리 고인돌공원에서 수반마을 입구까지 이어지는 왕벚꽃길에 밤 10시까지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 사진은 고인돌공원 왕벚꽃길 전경. <무안군 제공>

무안 고인돌공원 왕벚꽃길 야간경관 조성

한달 간 밤 10시까지 운영
무안군은 5일 "고질리 고인돌공원에서 수반마을 입구까지 이어지는 왕벚꽃길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밤에도 벚꽃길 산책과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조명 설치로 낮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며, 벚꽃이 진 이후에도 일부 구간은 주말 야간에 지속적으로 점등해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

공할 예정이다. 왕벚꽃길 야간 조명은 벚꽃 개화 시기부터 낙화 시기까지 4월 한달간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왕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많은 방문객들이 찾은 것으로 기대된다"며 "벚꽃철 이후에도 야간 경관을 활용해 군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인돌공원 왕벚꽃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관광과 관광개발팀(061-450-5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성호 기자

강진군 "종량제봉투 문제없다...사재기 불필요"

최대 2개월 공급... 가격 인상 계획 無

중동발 원자재 공급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사재기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강진군이 현장 점검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원 군수는 지역 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방문해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종량제봉투 공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 1일 기준 종량제봉투 보유 물량 기준으로 약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단기적인 수급 차질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군은 지난달 30일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종류별로 각 10만 매를 생산 중이며, 약 2주의 제작 기간을 고려해 분할 납품 방식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일부 사재기에 따른 일시적인 품귀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쓰러지종량제 봉투 판매업소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현상 방지를 위해 마을방송과 안내문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구매"와 "가격 인상 계획 없음"을 지속 안내하고, 4월 한 달간 판매업소 116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실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충분한 재고와 추가 생산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과 가격 모두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과도한 구매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해남군, 기차여행 관광상품 5종 출시

템플스테이·전통주·김장체험 등
코레일 홈페이지 등서 예약 가능

해남군이 해남역 개통을 계기로 철도와 연계한 기차여행 상품을 본격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KTX와 관광전용열차(남도해양관광열차 등)를 활용한 수도권 출발 상품과 경산·부산권 출발 관광전용 열차 상품 등 총 5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해남역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기반으로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자연·문화·음식 등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관

공업체와 협력해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여행 상품으로는 ▲프리미엄 해남 프라이빗 여행 ▲대흥사 템플스테이 힐링 여행 ▲고향사랑기부체 연계 불린투어 ▲전통주 체험 술레 열차 ▲김장 체험 열차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 중 '대흥사 템플스테이 힐링여행'과 '전통주 체험 술레 열차' 상품은 현재 출시된 상태이며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대흥사 템플스테이 힐링여행' 상품은 출시 일주일만에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여행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여행몰 누리집 또는 전화(1544-7755)를 통해 예약 및 문의할 수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전남 8개 상담소, 젠더폭력 가해 방지 연대

목포여성상담센터 등 공동 연합
사례 분석 바탕 광역 보호망 가동

전남 지역 젠더폭력 대응 전문기관들이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2차 가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대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5일 사단법인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남권 8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전문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젠더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공동 연대 활동'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대에는 목포여성상담센터를 비롯해 해남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성착취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광역여성상담센터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단일 기관 중심의 대응을 넘어 광역 단위의 총출동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연대는 목포여성상담센터가 지난해 추진한 '젠더폭력 2차 피해 사례조사 및 제도 개선 활동'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비탄과 조롱 등 구조적인 2차 가해 실태를 공론화했다. /목포=정해선 기자